

정암 조광조의 정치적 사유 -왕도와 패도

권 행 완 건국대 겸임교수

목 차

- I 정암의 宦路
- II 유교적 국가경영의 치도관
- III 정암의 유교적 왕패관
- IV 나가면서

1. 정암의 宦路(연보)

- 생애 1482~1519
- 17세(1498) 사초사건으로 희천으로 귀양간 한훤당 김굉필 문하에서 수학
- 21세(1502) 소학, 근사록을 위주로 삼고, 성리학에 대한 글들과 통감강목 등을 읽음. 매일 닭이 울면 세수하고 빗질하며 엄숙하고 단정히 앉아 심기를 편안히 하고 구부리고 읽으며 우러러 생각하며, 생각하여 체득하지 못하면 비록 날이 다하고 밤을 세우더라도 꼭 터득을 하였지 스스로를 한정지울 생각은 전연 갖지 않았다. 참다운 학문이 쌓여서...신독하는 것으로 힘을 삼았다. 선생 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미치광이라 칭하여 친구들이 간간이

- 끝어지기도 했지만 선생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 25세(1506) 중종반정
- 29세(1510) 진사시험에 장원으로 급제, 스님들과 함께 공부, 경전의 뜻을 탐색하고 정신을 모아 단정히 앉으니 조각한 사람 같았다. 일찍이 서산사에서 孟子 浩然章을 읽고 한달 동안에 그 진의를 해득
- 34세(1515) 지평 용문사에서 공부. 성균관 추천. 造紙署 司紙 제수-가을에 謁聖試 제2인자로 합격,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이상 정6품관), 11월 사헌부 좌정언(정6품관)이 되자 직분을 망각한 자(이자, 권민수)와 더불어 대간에서 같이 일할 수 없다 하여 파직을 청함
- 35세(1516) 호조좌랑, 예조좌랑, 공조좌랑, 홍문관 수찬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이상 정6품)

- 벼슬을 할 바에는 뜻을 가다듬고 임금을 바르게 하여서 요순시대의 임금과 백성이 되게 하여 유학을 일으킬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 경연에 들어가 하늘과 사람의 성품과 감정의 구분, 왕도와 패도, 의리와 이익의 분별로부터 몸을 닦고 정치에 미치는 도리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극론을 하기도 해가 기울음에 이르기도 했다.
- 36세(1517) 경연 석상에서 “임금과 신하는 위아래가 모름지기 지성으로 서로 돕고 통하여 간격이 없게 한 연후에야... 조治의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36세 2월 홍문관 교리 겸 경연시독관, 춘추기주관(이상 5품) 제수
- 36세 7월에 응교(정4품)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편수관, 승문원 교감校勘에 승진
- 36세 8월 김굉필의 벼슬과 시호를 주고 문묘에 종사할 것 요청, 정몽주 문묘종사 논하다. 성삼문 등 표창 요청
- 典翰에 승진: 사직을 청하고 또한 외직을 청함
- “마땅히 물러나 학문에 힘써서 학문이 이루어진 후에 돌아와서 섬긴다면 반드시 조그마한 보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벽지의 수령을 5~6년간 하고자 함은 백성을 다스리는 여가에 학술을 연마하게 되면 백성도 다스리고 학문도 이루어서 두 가지를 완전히 하려 함이다.”

- 37세(1518)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 홍문관 부제학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에 제수, 낙마, 大學 誠意章을 진강, 의리의 분별을 논하다. 공물의 폐단을 논하다.
- 37세 5월 승정원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홍문관부제학에 제수
- 37세 7월 소격서 혁파 청함, 야인을 몰래 습격하지 말라고 청함
- 37세 8월 논어를 강론, 9월 敬을 주로하는 공부 논의, 10월 근사록 강론
- 37세 11월 가선대부에 승진, 겸 동지성균관사(종2품), 사헌부대사헌 겸 원자 보양관. 현량과 설치 요청

- 38세(1519) 동지중추부사, 2월 性理大畧 진강 명받음, 4월 부제학 제수, 6월 다시 대사헌
- 문소전 능침 제사에 대해 논하다.
- 8월 성균관 유생 이끌고 궐 안에 들어가 강의, 사정전에서 원자에게 소학 강의, 왕패의 도리를 논함, 정국공신 개정을 청함
- 11월 능주로 귀양. 사사
- 정암은 날마다 중용과 논어와 맹자와 性理에 관련되는 여러 책과 근사록 등을 읽고 힘껏 실천. 늦게는 易經을 좋아함. 행동거지는 程子 형제를 모방. 전적으로 소학만을 숭상하지 않음

유교적 국가경영의 치도관

원시유가

- 덕의 정치와 힘의 정치
- 주나라 건국 : 有德者에게 天命
- 공자 : 덕/힘의 정치 인정(춘추시대)
- 맹자 : 덕과 힘의 정치 분리(전국시대)
- 崇王斥霸 : 왕도 숭앙, 패도는 배척
- 왜 하필 利를 말합니까. 仁義만 있을 뿐
- 순자 : 왕패병용
- 진나라 힘 추구하는 법가에 의해 통일

염철논쟁

❖ 염철논쟁: 유가와 법가의 논쟁(한소제6년)

- 정부 당국자(법가)는 흉노 정벌의 지속과 염철 전매정책의 존속을 고집
- 현량과 문학(유가)은 대외적 화친정책과恤민정책 주장
- 염철논쟁은 儒法 투쟁의 한 과정에서 유법의 절충과 융합을 통한 제3의 이념체계의 창출-外儒內法
- 유교적 왕패관=국가경영의 치도관

염철논쟁

- 염철 논쟁을 통해 유가와 법가는 ‘이유식법(以儒飾法)’ 혹은 ‘내법외유(內法外儒)’의 절충과 공존의 지혜를 배웠으며, ….. 염철회의는 단순한 경제정책 논쟁이나 정치적 책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이념과 사회계층을 형성하는 것이었으니, 한대(漢代) 아니 고대 중국의 사회와 국가의 전형적 모델은 진(秦)시황(始皇) 시기나 한(漢) 문제 시기 혹은 무제 시기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염철회의가 진행된 전한(前漢) 후기의 소선제 시기에 형성되었던 것이다.(염철론)

삼봉의 유교적 왕패관

- 하늘이 본성을 내려주어서 惟天降以衷
 - 백성이 떳떳함을 지녔느니라 民固秉其彝
 - 대륜을 말하자면 다섯 가지 인데 大倫乃有五
 - 순리이지 강위는 아니라오 順也非強爲
 - ∴∴
 - 맹자가 어찌 우릴 속였겠는가 孟子豈我欺
-
- 하늘이 본성을 내려주어 떳떳함을 지닌 天民 : 왕도정치가 발동하는 원동력

삼봉의 유교적 왕패관

- 옛날 성인이 賦稅法을 만든 것은 다만 백성으로부터 수취하여 자기를 봉양하는 것은 아니었다. 백성들이 서로 모여 살게 되면 음식과 의복에 대한 물욕이 밖에서 공격하고 남녀에 관한 정욕은 안에서 공격하여 동류일 경우에는 서로 다투게 되고 힘이 대등할 경우에는 싸우게 되어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통치자는 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다투는 자를 평화롭게 해 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삼봉의 유교적 왕패관: 붓과 칼, 문무겸전

- 영주 강 중정 시에 차운하다(次寧州康中正韻)

나이를 헤아리면 그대가 높지만(論齒君爲長)

교분은 내가 가장 친하고 말고(相交我最親)

강산을 이별한 지 어느덧 십년(江山十載別)

글과 칼쓰기 공부했지만 가난하다오(書劍一身貧)

정사가 간편하니 백성은 안정되고(政簡民安業)

시 맑으니 세상은 모두 보배로 삼네(詩清世共珍)

아마도 영각은 문이 닫히어(遙知鈴閣閉)

긴긴 낮에 두건을 벗고 있으리(晝永岸烏巾)

(삼봉집)

삼봉의 유교적 왕패관: 붓과 칼, 문무겸전

- 文은 태평한 정치를 이룩하는 것이요,
- 武는 난리를 평정하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양팔이 잇는 것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삼봉집)
- 文武 두 과거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태조실록, 즉위교서)

삼봉의 유교적 왕패관: 참선비(眞儒)

- 참 선비(眞儒)는
-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닳여지고 도덕을 겸비하여 가히 사범이 될만한 사람
- 식견이 시무(時務)에 능통하고 재주가 경국제세(經國濟世)에 알맞아서 사공(事功)을 세울만한 사람
- 문사(文辭)에 익숙하고 필찰(筆札)에 솜씨가 있어서 문한(文翰)의 임무 맡을만한 사람
- 율산(律算)에 정통하고 이치(吏治)에 달통하여 백성을 다루는 일을 감당할만한 사람

삼봉의 유교적 왕패관: 참선비(眞儒)

- 지모나 도략(韜略)이 깊고 용기가 삼군에 으뜸이어서 장수가 될만한 사람
-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고 돌맹이를 던지는 일에 솜씨가 있어서 군무를 담당할만한 사람, 그리고 천문, 지리, 복서(卜筮), 의약(醫藥) 중에서 한 가지 특기를 가진 사람

삼봉의 유교적 왕패관(王霸觀)

1. 유교적 왕패관의 사유방식 : 경(經)과 권(權)

- ◆ 유교적 왕패관은 경권의 패러다임으로 구성
 - 왕경패권론(王經霸權論)
- ◆ 왕도는 국가경영의 상도(常道), 패도는 국가경영의 권도(權道)
- ◆ 경: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하는 경상(經常)의 원칙
- ◆ 권: 시대정신과 상황의 시중성(時中性)을 고려하는 권변(權變)
 - 임기응변

- 경으로써 변화하는 현실과 시세에 합리적으로 적응하는 문제
- 권도는 항상 경이라는 울타리를 전제로 한다.
- 권이란 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적 방법

삼봉의 유교적 왕패관(王霸觀)

- 상보(相補), 병용(竝用), 회통(會通)의 논리
- 덕경법권(德經法權) 상벌론 : 왕도의 실현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법제적 장치
- 인경무권(仁經武權)-용문용무(隆文隆武)
- 인경무권(仁經武權) - 인의(仁義)와 용병(用兵)
- 예경부권(禮經富權) - 경제와 도덕의 회통

- 경제지상주의나 도덕제일주의가 아니다
- 도덕이상주의와 현실경제주의를 병합
- 패도적 물질문명과 왕도적 정신문명의 통합

춘정 변계량(공민왕1369~세종1430)

- 仁이라는 것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으로서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니, 이른바 마음의 덕이자 사랑하는 이치입니다… 仁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일체로 삼기 때문에 친한 이를 친히 한 뒤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 뒤에 만물을 사랑하여… 동물이나 식물로 하여금 어느 것이나 나의 덕화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의 덕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까. … 삼대 이후로 태평성대로 불렀던 나라는 한, 당, 송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는 한 고조의 관인에서 나왔고, 당 나라의 정치는 당 태종의 인의로 이룩(춘정집7권)

춘정 변계량(공민왕1369~세종1430)

- **진법을 편찬**
- 흑자가 묻기를 “익재, 삼봉, 호정 등 여러 선생이 편찬한 진법은 지금 그대가 편찬한 진법과 같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춘정집5권)
- **패도적 통치술 건의**
- “권력은 천하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바이고 이익은 천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이므로 권력과 이익의 칼자루는 하루라도 아랫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춘정집6권)

눌재(訥齋) 양성지(1415~1482)

- 양성지는 세조의 제갈량
- 양성지가 올린 君道論 : 正心, 修身, 齊家, 治國 등
- 임금의 德은 仁보다 큰 것은 없다.(論君道)
- 임금의 道를 논함 : 하늘이 백성을 낳았으나 하늘이 스스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게 맡긴 것이다.
- 임금의 道 열 두 가지의 일을 논함
- -문무(文武)를 동일하게 대우할 것 등
- -전대(前代)를 본받을 것 : 정치의 모범을 당우삼대(요순우)에서 찾되, 나아가 한문제, 한고조, 당태종, 송태조, 금세종의 정치도 겸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 당태종은 반란을 제압하고 세상을 구제한 공로가 크다.
- 정관정요도 항상 관람(聖學을 부지런히 할 것에서)

눌재(訥齋) 양성지(1415~1482)

- 변방을 방비하는 열 가지 계책
- -조정의 계책을 세울 것
- -사졸을 골라 뽑을 것
- -장수를 선택할 것
- -군량을 저축할 것
- -기계를 정비할 것
- -성보(城堡)를 수리하고 관방을 정할 것
- -근본을 강장(強壯)하게 할 것 : 서울은 근본 되는 땅입니다...대체로 성곽이 견고한 뒤라야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어서 사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먼저 스스로 다스릴 것

눌재(訥齋) 양성지(1415~1482)

- **군정십책(軍政十策)**
 - -군법을 엄하게 할 것
 - -군정(軍情)을 살필 것
 - -군대의 수를 충실하게 할 것
 - -군령(軍令)을 간이하게 할 것
 - -군제(軍制)를 정할 것
 - -군기(軍器)를 정비할 것
 - -군사의 사열에 대하여
- 임금이 된 이의 마음가짐의 요건이 세 가지가 있으니 **仁**과 **明**과 **武**이고, 나라 다스리는 요건도 세 가지가 있으니 **任人**(사람에게 맡기는 것), **廳諫**(간언을 들음), **상벌**이다.
(論君道) 상벌은 법가의 주요 통치수단

정암의 유교적 왕패관

정치적 배경

❖ 조선초기 왕위계승 패턴

- 태종의 패권적 권력계승
- 세조의 패권적 권력계승
- 세종과 성종의 택현적 계승
- 문종, 단종, 연산군의 종법적 계승
- 중종의 패권적 권력계승
- 16세기 연산군대의 패도정치를 경험하면서 왕도 정치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게 대두
- 조광조는 세상을 개조하겠다는 도덕적 의지 투철

주자, 유가 도덕주의

- 노형께서는 한고조와 당태종이 한 바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과연 도덕심에서 나왔는지 사리심에서 나왔는지 또 과연 그들의 동기가 사악한 마음에서 출발했는지 올바른 마음에서 출발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그런데 한고조는 사사로운 마음이 치열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당태종의 경우는 어느 한 순간의 생각도 인욕에서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朱文公文集,卷36, 答陳同甫

주자, 유가 도덕주의

- 관중의 공적은 이윤과 여불위 이하 누가 감히 그에 미치겠습니까?
- 그러나 그 마음은 이욕의 마음이고 행위는 이욕의 행위일 뿐이니
- 성인은 비록 그의 공적을 칭찬하였지만 맹자와 동중서는 모두 법의에 비추어 그것을 판단하였을 뿐 다른 것을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朱文公文集,卷36, 答陳同甫

진량, 유가 공리주의

- 한당시대가 인욕으로 지배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중략)
- 잡패(雜霸)의 도 역시 본래 왕도에 기초한다. 여러 유자들은 스스로 義와 道이라 자처하며, 漢唐 군주가 이룬 일은 利와 霸라 하지만, 한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쪽은 저렇게 말한다.
- 유자들의 말은 비록 매우 좋지만 한당군주가 이룬 것도 역시 나쁘지 않다. 이것이 바로 義利병행이고 왕패병용이다.
-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마음이 이 모든 일을 성취했다고 생각한다. <진량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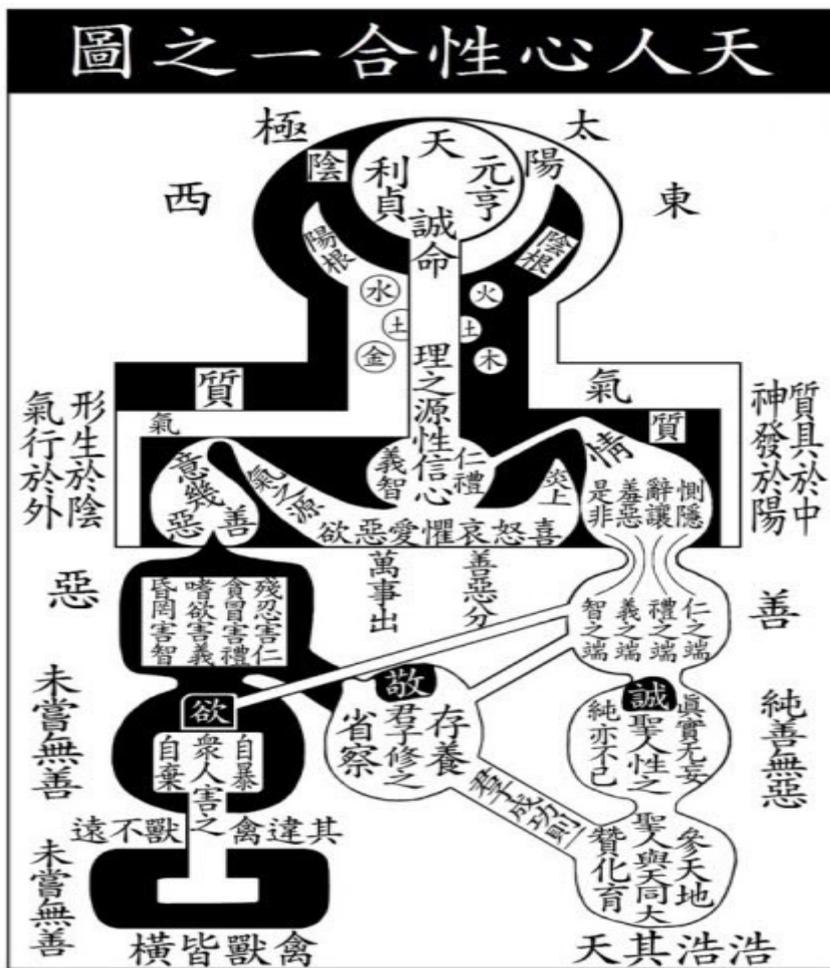
주자학과 사공학의 대립은

- 주희와 진량의 왕패논쟁은 존왕천패설(尊王賤霸說)과 왕패병용설로 대립하고 있다.
- 특히 삼대와 한당의 군주들, 즉 한고조, 당태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 주희는 정치적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중시하고
- 진량은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중요시 한다.

유교성왕론

- 인군의 마음이란 정치를 내는 근본이니, 그 근본이 바르지 못하면 정체가 의지해서 설 수가 없고 교화가 행해질 수 없다.
- 인군은 도덕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 임금의 마음이 밝아야 남의 邪正을 알 수 있습니다.
- 낮에만 늘 정치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혼자 계시면 聖學이 진실로 전일해지고(실록)
- 자칫 한 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一毫의 잘못이 끝내는 천리나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조금도 소홀히 마시옵소서(중종실록 13년 4월 정유)
- 서경에 시종여일하게 治道를 지켜가는 이라야 오직 밝은 明君이다. ...인군된 이는 好惡, 是非, 義理의 분별에 대하여 깊이 탐구하기를 흑백을 가려내듯 해야 한다.

- 오직 원할 것은 주상께서 날로 慎獨을 더하시고 공부를 성실히 하시어 시종토록 어긋나지 아니한다면 정치의 덕화는 더욱 주효할 것이요,
- 만약에 세상 도리가 날로 떨어져서 끝끝내 번개하지 못한다면 人道는 마침내 禽獸로 돌아갈 것입니다.



유교성왕론

- 아랫사람들을 진작시킴은 윗사람에게 달린 것이니, 성상께서 먼저 德을 닦아 감동시킨다면 아래서도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 至治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 지치주의 : 지치란 《서경》 군진편(君陳篇)의 ‘지치형향 감우신명(至治馨香感于神明)’에서 유래.
- “선정의 향기는 신명을 감동시킨다.”

유교성왕론

- 삼대(三代)의 정치를 지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먼저 임금 자신의 德을 닦고 나서 그 방법을 사물에 옮겨 행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감화하여 자연 德을 닦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자신의 德을 돈독히 닦고 온갖 교화가 모두 자신의 밝은 德으로부터 나오게 한다면 백성들이 자연 우러러보고 기뻐해 마지않을 것입니다. 또는 그 德을 가만히 지키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예악형정(禮樂刑政)을 곁들여 시행하여 무슨 할 만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분발해서 행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지방이 아주 적어서 임금님께서 한 말씀을 하신다면 팔도 사람이 하루 아침에 다 들어 알게 된다.

- 교화란 반드시 사람마다 붙들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趨向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감화되고 차츰 훈도되어 모두 선을 따르게 될 것이오니 이것이 교화이옵니다.
- 인심은 다 착한데 어찌 감화되지 않는 이가 있겠사옵니까?

- 임금의 학문은 한마음을 맑고 밝게 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모든 시책을 해나가는데 나타나게 해야 한다.
- 만일 헛되이 경연에서 논란만 하고 모든 사업에 손대지 않는다면 釋氏의 학문에 가까울 것이니… 공경으로 안을 바르게 하고 義로써 밖을 바르게 한다면 안과 밖이 서로 함양될 것이다. (敬而直內 義而外方)
- 당우상대를 목표로 세우고 格物致知誠意正心에 전념한다면 점점 성현의 경지와 요순의 정치가 이루어지겠지만, 만약 헛되이 뜻을 고원한 데 두고 실질적인 공부를 착수하지 않는다면 날로 허망한 곳으로 흘러갈 것이다.

- 널리 배우고(博學), 자세히 묻고(審問), 신중히 생각하고(慎思), 밝게 분별하고(明辯)으로써 格物致知의 요령으로 삼고 篤行으로써 경험을 채우는 용법으로 삼았다.
- 天理와 人欲의 기미와 왕도와 패도와 義와 利의 분별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論難해 분석하기를 마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잡된 것이 있어서 정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유교성왕론

- 도교의 관서 소격서(昭格署) 철폐
- 전일한 왕도와 순수한 왕정을 위해서 소격서 혁파해야
- 정암 선생이 소격서 혁파에 대해 논계할 적에 닭이 울 때 까지 그만두지 않아서 임금이 듣기 싫어하는 뜻이 있게 하였으니 밝은 곳을 따라서 깨우쳐 인도하는 도리가 아니다. (정암조선생문집)
- 소격서를 혁파하는 일 또한 임금을 바로잡는 한가지 일
- 면대할 적마다 말을 그칠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그 사이에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는 다 선생이 되풀이 강론하여 의리로 하여금 귀에 익숙하게 하여 涵養薰陶하여 모르는 사이에 聖德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 (문집)

- 이윤의 뜻한 바를 뜻하고 顔子の 배운 바를 배워야 할 것
- 국사가 대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상하가 어긋나서 순조롭지 못할 것이요 그러하다면 善治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義와 利

- 학자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은 義利之辨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으니 私欲의 싹이 利에서 비롯됨을 생각하여 그 근본을 뽑아버린 후에 학문에 안정할 수 있다.
- 임금이 義利公私의 분별에 가히 밝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義와 利, 公과 私의 분별을 잘 알아서 의혹되지 않는다면 안팎으로 수양하여 마음씨가 맑아져서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쁨이 모두 그 올바름을 얻어서 일을 처리하고 사물을 접함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義와 利

- 이욕의 근원을 막고 세상의 도리를 지키는 데에는 훈육을 삭제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문집 사실)
- 功利의 원천이 막히지 않았다.
- 사회의 직접적인 계기는 1519년(중종 14)에 다시 가열된 중종반정공신의 위훈삭제(僞勳削除) 문제
- 76명의 공신호를 삭탈하고 분급한 토지와 노비 몰수
- 조광조는 능주(綾州)로 귀양가서 사사(賜死)

형법은 정치를 도울 뿐

- 刑法은 비록 폐할 수는 없으나 다만 정치를 도울 것이오, 정치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하라 했으니 백성을 사랑함이 진실로 어린아이를 사랑함과 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위를 보는 것이 반드시 부모같이 여길 것이니 이와 같은 마음이 짐이 오래간다면 정치적 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文武

送叔父赴慶源鎮

경원진으로 부임하시는 숙부님을 전송하다

- 世人不究理 세상 사람들은 이치를 탐구하지 않아.
- 文武爲兩事 문과 무를 두 일로 삼고 있네
- 文旣非章句 문은 이미 장구(章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
- 武豈善射騎 무가 어찌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것만을 의미하리
- 武侯在草廬 무후(제갈량)가 초려에 있을 때
- 所事明心地 한 일은 마음을 밝히는 것이라네

1011010011001100110101000101101011000101101011000101101011000101

- 朝廷重北門 조정에서는 북쪽 관문을 중히 여겨
- 叔也充其師 숙부로 하여금 그 곳의 장수로 두셨네
- 野人雖難化 야인들은 비록 교화하기는 어려워도
- 稟性非有二 천성을 받은 것은 둘이 아니네
- 聞道服廉潔 유도儒道를 들으시며 청렴결백하셨으니
- 是事猶可類 이번 공무도 오히려 같이 하실 수 있으리
- 德來必來服 덕인이 오는 곳에는 반드시 복종하니
- 但念治不治 단지 선일지 그렇지 않을지를 염려하네

1011010011001100110101000101101011000101101011000101101011000101

- 鎮將閣且悍 진지에 있는 장수들은 거칠고 사나우니
- 威武且貪建 무장들의 위세 또한 탐욕스럽고 거리낌이 없네
- 遂使昔來格 급기야 예전부터 내려오던 격식을 갖추게 하여도
- 反致城下伺 도리어 성 아래만 염탐하네
- 固知禦戎道 진실로 군대를 다스리는 도는
- 不在威與備 위세와 군비(軍備)에 있는 것이 아니네

- 夷狄들은 貧하고 교활한 氣質이 있어서 强盛하면 邊境을 侵犯하여 人畜을 노략질하고, 약하면 틈을 타고 몰래 침입하여 邊民을 괴롭힙니다。
- 그래서 道가 있는 人君은 뜻 깊게 그들을 對備하고 正當하게 防禦하여 아무리 强暴하게 노략질 하더라도 함부로 군대를 동원하여 遠征하지 않사오며、 歸順하여 복종하더라도 邊城의 守備는 늦추지 않아서 國境을 侵犯하지 못하게 하고 境內를 安定되게 할뿐이옵니다。

- 우리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로서 三面으로 敵과 對峙하는데 西北이 더욱 甚하오며、함경 평안 兩道는 土質이 매 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兵力이 모자라며 守戰對策이 어려움이 많사온데, 近來에 와서는 昇平이 오래 된 관계로 더욱 소홀해져서 防備가 不實하며 軍需는 바닥이 나고 兵力도 減縮되어 무너진 城柵 塹壕 堡壘를 補修할 수 없고, 兵甲 투구 弓矢 戟弩의 기구가 堅利하지 못하며、

- 또 邊方 責任者中에 난폭하고 無識한 자는 刑杖을 濫用하여 無辜한 사람에게 殘忍한 짓을 하고 罔치 없이 탐욕을 가진 자는 軍民들을 괴롭히고 적들과 이익을 나누며、果敢하게 功名을 세우려는 자는 威猛을 誇示하여 元망을 사기도하며、懦弱하여 安逸을 爲主로 하는 자는 軍政은 걱정도 않고 歲月만 보내고 있사오니 이래 가지고서 邊境이 堅固하길 바란들 可能하겠사옵니까?

- 現在의 方法은 將帥를 慎重하게 선택하여 적격자를 구하고、官吏를 선발하여 民衆을 平安하도록 撫摩하고 紀律을 바로잡으며, 軍사를 訓導하여 國防 守備를 강화하고 要害地를 지키며、禁防을 慎重히 하고 척후를 철저히 하며 농사를 힘써 食량을 충당하고 軍사를 조련하여 威容을 쌓아 德化로 撫摩하기도 하고 武力으로 위협도 하게 되으면 變경이 걱정 없이 보전 될 것입니다

도통론

- 당나라 한유(韓愈, 768~824)는 불교의 범통에 대항하여 도통론 주장
- 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맹자-자사...주자
-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야은(冶隱) 길재(吉再)-김숙자(金淑子)-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 등
- 성리학은 곧 자신을 위한 학문이고 남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실록)
- 성리학 이외의 모든 학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조선시대 500년 사상계가 성리학 일색으로 점철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 지금 성리학이 있는 줄 알게 된 것은 광조의 힘이다.(정암조선생문집)

현량과

- 성상처럼 治化에 뜻을 둔 지 오래 되었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인재를 얻지 못한 때문이니 이 법을 실행하면 인재를 얻지 못할 걱정은 없어질 것입니다.
- 遺逸을 찾아 조정에 배치시키는 것은 곧 삼대의 아름다운 정치
- 군자와 소인은 얼음과 쏜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 군자와 소인은 양립할 수 없다... 전하께서는 엄단을 내리셔서 쫓아내도록 하시옵소서.
- 한 마음이 빛나고 밝게 된 연후에 군자와 소인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임금이 格物致知誠意正心の 功에 이르러야

현량과

- 또 현량과는 부득이 혁파해야 합니다. 저들이 다 끌어들이서 경연관 또는 大司成이 되게 하고자 하였으나 조종의 법이 아니므로 현량과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아는 자들만을 뽑아서 시험하되 그 사람들의 이름 밑에 '經濟가 裕餘하느니' 학문에 연원이 있다.' 느니 주를 달았다 합니다. 대저 경제가 유여하다는 것은 능히 성인 지위에 도달한 자라야 그런 것입니다. 널리 베풀어서 못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堯舜일지라도 잘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경제가 유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량과

- 또 학문에 연원이 있는 자도 성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孔子의 제자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고 자유, 子夏일지라도 잘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저런 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임금을 속인 것이며 그 나머지도 이와 같습니다. 임금께서 능히 깨달으시면 쾌히 결단하여 혁파해야 하고 이렇게 유난하셔서서는 안 됩니다.
- 조광조는 삼대의 정치를 위한 인재 등용
- 반대 세력은 세를 불리고 힘의 결집

왕도와 패도

- 예로부터 임금된 사람들이 많이 패권의 공로를 좋아하나 왕도를 행한 것은 드물었습니다. 패도를 숭상하면 비록 나라를 부하게 하고 군비를 강하게 하는 효과를 이루기는 쉬우나 어찌 仁義의 도리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 왕도를 행하면 비록 조석간의 효과는 보지 못할지라도 오래되면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맹자는 제나라, 양나라에 자주 초빙 당하여 몇 번이고 거듭 깨우쳐 준 것이 다만 이 **왕도** 행하기를 권할 뿐이었습니다.(문집 권4)
- 妾婦가 남편을 능가하고 소인이 군자를 멸시하며 夷狄이 중국을 침범하는 것이다. 궁중의 첩부와 조정의 소인과 변방의 夷狄에 대하여 마땅히 미리 대비해야 한다.

- 학술은 一毫의 잡물이 있어도 안 된다. 잡물이 없으면 그 처사는 모두 도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학문이 高明에 이르면 權道도 역시 쓰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權道는 중용의 도리에서 나온 것으로 權道로서 중용을 얻게 되면 천하의 일에 있어서는 무슨 난처함이 있겠는가.
- 중용을 잡아서 조심조심 하시라.

왕도와 패도

연중기사 4(筵中記事 四): 靜菴集 권5

- 회녕부(會寧府) 성밀의 야인(野人) 속고내(速古乃)가 걸으로는 우리나라에 심복하는 채하고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몰래 깊은 곳의 야인과 통모하여 갑산부(甲山府)를 침범하고, 사람과 가축을 많이 잡아갔다. 변장(邊將)이 속고내의 짓인 줄을 알고서 치계(馳啓)하고는 다스리려 하였는데 깊은 곳으로 도망해 들어가서는 이름을 바꾸고 왕래하였다.
- 무인년(1518년)에 함경남도 병사(兵使)가 비밀히 아뢰기를, 속고내가 갑산 근처에 잠복하고서 왕래하면서 고기 잡고 사냥질하는데도 그 무리들을 잡기 어려우니 불의에 발병(發兵)하여 잡도록 하자고 청하였다.

왕도와 패도

- 임금이 삼공과 각 조에서 변방을 잘 아는 재상을 불러 의논하니 모두“이를 징계하지 아니 하면 성밀 야인이 계속하여 서로 반란할 것이니 난이 일어난 후에는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급히 변방을 잘 아는 중신을 보내어 감사, 병사와 함께 조치하여 잡고 법을 두어 후일을 징계하소서.”하니
- 상이 윤휴하여 먼저 本道에 밀지를 내리고 또 곧 甲兵과 기계(器械)를 보내었다. 이지방(李之芳)을 명하여 보내면서 특별히 어의(御衣)와 활, 화살을 하사하였고 그날로 배사(拜辭)케 하였다.
- 상이 선정전에 납시어 소대(召對)하고 잔치를 내리는데, 삼공 및 각 조의 당상과 변방을 잘 아는 재상들이 좌우에 빙 둘러 모시고 있었다. 이때 김정국이 병방승지(兵房承旨)로써 입시해 있으면서 아뢰기를

왕도와 패도

- “부제학 조광조가 입대(入對)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곧 윤휴하시었다. 조광조가 나아가 아뢰기를
- “이것은 속이는 것이요 바른 것이 아니니, 王道가 군사를 어거하는 도가 아니요 곧바로 담을 뚫는 도적의 꾀와 같은 것입니다. 당당한 성조(聖朝)로서 일개 보잘 것 없는 오랑캐 때문에 도적의 꾀를 써도 나라를 욕되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니 신은 그욕이 부끄럽습니다.” 하였다.
- 상이 곧 보내지 말 것을 다시 의논케 하자, 좌우가 다투어 나아가 아뢰기를
- “병가에는 기(奇)와 정(正)의 법이 있고 군사를 어거하는 데는 경(經)과 권(權)이 있습니다. 기회에 임하여 변을 제어하는 데는 가히 한 의논으로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상의하여 꾀한 것이 이미 같은데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하고

왕도와 패도

- 병조판서 유담년(柳聘年)이 나아가 아뢰기를
 - “발갈이는 마땅히 남종에게 묻고 베짜기는 마땅히 여종에게 묻는다 하였습니다. 신은 어렸을 때부터 북쪽을 문을 출입하면서 지금에는 흰머리가 되었습니다. 변방 방비의 일과 저 오랑캐의 정상을 신은 이미 갖추어 알고 있습니다. 청하옵건대 소신의 말을 들으소서. **물정을 모르는 선비의 말은 예부터 이와 같이 비록 이치에는 가까운 듯하나 형세는 다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또 묘당(廟堂)의 모책(謀策)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가벼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였지만
 - **상은 오히려 듣지 않아서 여러 재상들은 모두 불평을 품고 파하였다.**

- 또한 오랑캐는 교화시키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德으로써 해야만 하는데, 德이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는 일이 모두 誠意에서 나와서 一毫의 거짓도 없어야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문집1권)

나가면서

- 왕도정치를 높이고, 패도정치를 천하게 여겼으며, 정학을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쳤다.(퇴계 행장)

－ 퇴계의 평 : 방향은 옳았으나 성급하고 무모함

“조정암은 타고난 바탕이 뛰어났지만 학문의 힘이 가득 차지 못하고 그가 하는 바가 지나침이 있었기에 **마침내 일을 그르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만일 학문이 충실하고 덕기(德器)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담당하였다더라면 그 성공은 쉽게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 율곡의 평 : "그는 어질고 밝은 자질과 나라를 다스릴 재주를 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정치 일선에 나간 결과, 위로는 왕의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구세력의 비방도 막지 못하였다.**"

- 퇴계의 평가처럼 송왕천패가 기본 입장이나 패도의 탈각까지 초래
- 사상적으로 雜보다 純을 추구하여 순수성 높으나, 사상의 경직성 피할 수 없다.
- 사상적으로 실용성 탈각시키고 도덕성 위주의 도덕적 의지로 치닫는 결과 초래
- 격君 할 때의 권도와 상황적 時中의 권도 초점불일치



감사합니다